

어린이책 출판 '비룡소' 광주에 그림책 서점 오픈

수완지구에 '비룡소 책방'
50개 출판사 책 판매
육아맘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30일 그림책 작가 이수지 특강



'상상력이 비상하는 연못'을 비룡소라고 한다. 원래는 용이 승천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연못을 일컫는 다.

이수지 작가 어린이 책 출판사 '비룡소'가 광주에 그림책 전문서점 '비룡소 책방'을 열었다. 지난 15일 수완동 'S+ 광주점' 2층에 문을 연 비룡소 책방은 어린이들이 좀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하기에 앞서 한번쯤 머무르는 '성장의 연못'을 꿈꾼다.

출판시장이 날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책 브랜드가 광주에 그림책 전문 서점을 오픈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그림책은 그림과 언어로 결합된 형태로, 어린이에게는 생의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그림책 서점 오픈은 지역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룡소는 지난 1994년 민음사의 계열로 세워진 어린이 전문 출판사다. 박명호 민음사 회장의 큰딸인 박상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왔다.

무엇보다 비룡소는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세계적인 유명 작가와 화가의 작품을 소개해왔다. 1992년에는 어린이 책 출판사로 최초로 황금도깨비상을 제정, 매년 신인작가들의 발굴과 국내 작가들의 활동을 도모해왔다.

이번에 개점한 광주점 비룡소 책방에는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 비룡소가 지난 15일 수완동 'S+ 광주점' 2층에 '비룡소 책방'을 열었다.

<비룡소 제공>

읽기 물, 논픽션 물 등 그림책 위주의 서적이 들어와 있다. 비룡소 외에 길벗어린이, 보림, 사계절, 사파리, 시공주니어, 웅진주니어, 책 읽는 곰, 한림 등 50개 출판사의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좋은 그림책들이 연령별·주제별로 비치돼 어린이와 육아맘 그리고 어른들이 자유롭게 그림책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비룡소는 광주점 개점을 기념해 두 가지 이벤트를 마련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듣는 북 큐레이션', '육아맘을 위한 초청 강연'이 바로 그것.

'엄마와 아이가 함께 듣는 북 큐레이션'

은 오는 30일(토), 내달 7일(토)에 진행된다. '네 등에 집 지어도 되니?'의 작가 장선환과 2016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그림책 작가 이수지, 교과서 수록도서 '아씨방 일곱 동무'의 작가 이영경이 강사로 나서 독자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육아맘을 위한 초청 강연'은 오는 20일(수), 23일(토), 6월 3일(금)에 각각 진행된다. 독서 교육 지도사 고선희와 '별뿔별 아줌마'로 잘 알려진 어린이 과학책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유,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의 김은하 소장이 그림책 읽기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강연은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비룡소 카페에 신청글을 남기면 된다.)

비룡소 책방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월·화요일 휴무), 5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그림책 읽어주는 책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룡소 박상희 대표는 "비룡소 책방은 책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기존 서점의 기능에서 나아가 독자들이 그림책을 다각도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이번 책방 오픈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독서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문화전당 명사 초청 'ACC인문강좌'

6월말까지 12차례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철학, 과학, 역사,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을 초청, 'ACC인문강좌'를 진행한다. 극장2에서 열리는 상반기 강의는 오는 6월말까지 모두 12차례 진행되며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준익 감독 정재승 교수

첫 강연은 두 천만 감독이 진행한다. '천만감독과 함께하는 시네콘서트'라는 주제로 '명량'의 김한민 감독(19일 오후 7시)과 '왕의 남자', '동주'의 이준익 감독(5월 2일)이 시민들을 만난다. 영화 평론가 전찬일씨 사회로 한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파페라 가수 김선희씨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27일에는 철학자 강신주가 강의를 진행하며 이후 김희준 GIST 석좌교수, 우실하 한국항공대 교수, 박해천

동양대 교수, 임등근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정정기 문화연구원, 백원담 성공회대 중문과 교수, 나희덕 작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 명사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일부 강좌는 예외)에 진행되며 ACC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바다꽃예술중앙회 창립 작품전

19~21일 빛고을시민회관

금바다꽃예술중앙회(회장 김해란) 창립기념 작품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회관 전시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전에는 12명의 회원들의 작품을 비롯해 (사)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독일FDF플로리스트, (사)광주시 꽃예술작가협회,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광주지회 회원들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초대 회장을 맡은 플라워디자이너 김해란씨는 독일 FDF플로리스트 자격을 획득하고 현재 전남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내정원 전담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활발



김해란 회장

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아름다운 꽃을 주는 꽃이 좋아서 20여년 전 꽃꽂이 교실에 입문해 작품을 배우면서 꽃 예술의 무한함과 자연의 신비로움에 매료됐었다"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금바다꽃예술회 창립 작품전을 준비하면서 화훼장식분야의 다양함과 새로운 경향에 맞춰 한 작품 한 작품씩 완성해 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출범

해외관광객 유치·전남형 관광두레 육성 등 활동

전남문화관광재단이 15일 출범했다. 전남개발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전남문화관광재단 출범식에는 재단 명예대사로 위촉된 임권택 감독과 재단 이사장인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심재찬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기존 문화예술 진흥업무와 관광 업무를 새로 맡게 된다. 신설된 '관광마케팅팀'과 '관광연구개발팀'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

기·크루즈 유치활동 ▲마이스(MICE) 산업 기반 구축 및 휴양형 마이스 유치 ▲전남형 관광두레 육성(관광분야 청년 리더 양성) ▲전남형 상품 개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R&D 업무를 맡는다.

재단은 지난 2009년 5월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성과 등을 위해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출발해 지난해 6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연구 등 관광진흥을 위한 전남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개편 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5일 전남개발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임권택 감독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제공>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